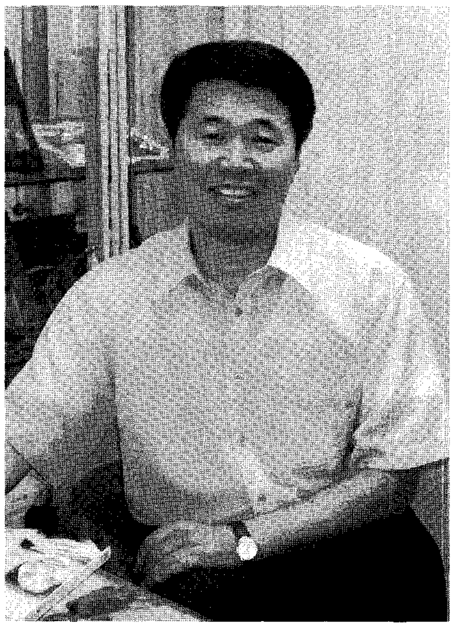
● 『발명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희미한 잉크가 뛰어난 기억력을 이긴다



김병오 회장
전국발명교육연구회
[inv.or.kr/ ajukbo@hanmail.net]

'둔필승총(鈍筆勝聰)', '탁월한 머리보다 무딘 연필이 앞선다'라는 독일의 격언과 같은 이 말의 뜻은 '아무리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라도 서투른 솜씨로나마 기록하는 사람만 못하다'는 뜻이다. 즉 자기 머리가 총명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보다 머리는 그다지 총명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메모를 잘해 두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다.

보통 나쁜 기억이나 슬픈 기억들을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 '세월이 약이다'라는 속담을 사용하곤 한다. 나쁜 기억이나 슬픈 기억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잊는 것이 좋은 약이 되겠지만, 출근길 자동차나 지하철 또는 화장실 안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그 순간이 지나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큰 허탈감에 빠졌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빨리 잊는 것은 약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놓쳐 버리게 하는 독소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듯 소중한 아이디어를 빼앗아 가는 망각의 독소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기록하는 습관'이다. 아이디어는 장소의 구별 없이 어디에나 굴러다니며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메모를 잘하는 '기록광'이었다고 한다. 링컨은 긴 모자 속에 항상 종이와 연필을 넣고 다니면서 떠오른 좋은 생각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들은 의견을 꼼꼼하게 메모하여 지시하고 실천한 덕택에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다. 음악가 슈베르트는 어느 때는 식당의 식단표에 혹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만원버스 안에서는 앞사람 등에 그때그때 떠오른 악상을 적어 그렇게 많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최근 알렉산드리아 롭 마이크로 소프트(MS) 부사장은 "사무실에서 종이와 펜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3~5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무실에 태블릿 PC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태블릿PC는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 전자펜만으로 모든 PC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든 노트북 PC보다 한 단계 진화된 차세대 휴대용 PC다.) 이것은 종이와 일반 펜 대신 전자펜과 태블릿 PC가 사용된다는 뜻이며 오히려 기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발명은 기록에서 태어난다.

발명에서도 기록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한 예로서 '깍지 않는 연필'을 발명한 대만의 「홍려」라는 사람을 들 수 있다. 그는 가난한 대장장이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록하거나 그림을 그려 두었다가 그것을 발명으로 연결했다고 한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많은 기록들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느라고밤새도록 연필 깎는 일을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이거 참 불편하군, 연필을 깍지 않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결국 가느다란 연필심을 카트리지에 끼우고, 그것을 속이 빈 플라스틱 파이프에 여러 개 넣어 연필심이 다 닳으면 파이프 꽁무니를 눌러 다른 심이 나오도록 고안한 '샤프 펜슬(깍지 않는 연필)'을 발명하여 86개국에 특허를 내고 많은 돈을 벌었다.

앗! 냉장고에 신발을…

인간의 눈은 비디오 렌즈이며, 두뇌는 14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진 필름이다. 머릿속에 무엇인가 새겨 두는 일을 기억이라고 말하는데, 한 번 자극적인 인상을 남기게 된 일은 뒷날에라도 상기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완전히 잊어버린 경우라도 어떤 계기에 의해 재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기억력은 남녀를 불문하고 마흔을 넘어가면 대부분 감퇴되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이런 기억력 감퇴현상을 한번쯤 겪어보았을 것이다.

- 신발장에 넣어야 하는 신발을 냉장고에다 넣는 경우
- 학원 갔다온 딸에게 주려고 준비한 비빔밥을 딸이 세수하는 동안 먹어버린 경험
- 세탁기의 빨래를 꺼내러 갔다가 무얼 하러 갔는지 잊어버린 경우
- 114로부터 방금 안내 받은 전화번호를 깜빡 잊고 다시 확인했던 일 등 하찮은 일이지만 한 번쯤 되새겨 볼만한 어느 50대 주부의 사례들이다.

비눗방울을 잡아야 한다.

전화기 옆에는 늘 펜과 메모지를 준비해 두라. 전화통화 중 중요한 내용을 메모해야 할 경우 필기도구를 찾느라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반면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이어진 전화통화 중 예전에 자신과의 통화 사실과 주고받은 전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당하여 놀랜 경우도 종종 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전화통화를 메모하여 기록 내용을 보면서 통화한다는 사실이다. 즉 전화기 옆의 메모도구를 활용하는 조그마한 관심과 노력만으로 자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화기 옆의 펜과 메모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파트너이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며,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곳 어디든지 준비해야 한다.

침대 옆에도, 자동차 안에도, 여행가방 안에도, 양복 주머니에도, 책상 위, 그리고 화장실에도 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멋진 아이디어가 비눗방울처럼 무지개 빛을 띄면서 떠오르다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즉시 적어놓지 않으면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만약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기록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생활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록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당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삶의 목표가 없다는 뜻이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과연 기록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확인하라! 자신의 일기장(업무수첩)을 다시 한번. 거기에 남아있는 희미하게 바랜 기록들일지라도 그것은 망각의 독소를 예방하는 백신이며, 그것이 훗날 당신 삶의 목표를 완성하게 할 것이다.

만화로 보는 발명 · 특허 이야기

발명의 10계명 ❶ 더해보자

감수/오해정
글/왕연중 · 그림/김민재